

聖句

영제왕아 내마음에
영하는바와 같이
영제왕아 내마음에
영하는바와 같이
영제왕아 내마음에
영하는바와 같이
영제왕아 내마음에
영하는바와 같이

支部上野圖書館

政治會談의 展望과 祖國의 將來

嚴冬에 戰災 同胞의 慘狀을 生가하여

總蹶起하고 合心祈禱하자

바람직한 형태 상단과 다시
중공 공작의 침략으로 계속
되는 무서운 전란은 당시 정
지되어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알려진 바와 같이, 더욱 크고
공포한 것이었다. 정치협상회
합고 거기에 회담을 벌이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일찍부터
알고 있는 것이다.

법서 예비회담에서 중립국인
도 참가문제에 결렬되고 비록
미국측에서 타협할 의사가 있
을지라도 우리 이대통령이
대반대하기 때문에 용이하게
합적이 아니라는 설득이
문제에 어느정도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그 곤란한 문제가 있을지 미
국측에서는 예측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중공측에서
중립국으로 소련을 참가시키자
고 하리라는 것이다.

共産側의 謀略과 鬭爭

그런데 한편에서는 좀더
참고하고 약한 모략을 쓰고 있
는 불행이요 지금 예비회담에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千代田區
神田區藥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 2623番
電報 佛人 佛人 佛人
主筆 田榮

福音新聞
THE POK EUM SHIN MUN

(社説) 日基督教側에 對한 失望

한일간의 감정이 자못 격화
하는 이때에 우리는 일본의
기독교인이 솔선하여 성의를
보이고 여론을 일으킴으로써
차의 감정을 완화하도록 노력
하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지난
번 NCC 평화위원회의 성의있
는 태도를 매우 고맙게 여겼
다. 근일에 몇가지 기독교간
행동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우리의 가진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크게 유감으로 여기는
바이다.

한일간의 감정이 자못 격화
하는 이때에 우리는 일본의
기독교인이 솔선하여 성의를
보이고 여론을 일으킴으로써
차의 감정을 완화하도록 노력
하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지난
번 NCC 평화위원회의 성의있
는 태도를 매우 고맙게 여겼
다. 근일에 몇가지 기독교간
행동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우리의 가진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크게 유감으로 여기는
바이다.



웃을 줄을 모르는 전제고아

있어서도 여러가지 모양으로
각가지 방법으로 모략과 공작
을 전개하고 있다. 이승만 정
권이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
민중을 속이고 민족을 망치려
고 한다고 하고 한편으로 미
국이 침략적 행위를 가지고
한국을 기지로 삼아 아세아로
진출하여 이를 삼키려고 한다
는 등 가진 허위선전과 모략에
몰두하고 한국민족을 구하는데
는 공산정도로 동일할 것이라고
하여 그 계획으로 온갖 모략
과 수단을 다 쓰고 있지 않
는가.

咸台永副大統領하와이에



咸台永副大統領의 명 사진

합부대통령께서는 이번 하와이 한이 이민 五十주년 기념식에李大統領을 대신하여 참석하시기를 위하여 하와이를 향하여 가시는 길에 지난十二月十二日 오후五時二十五分에 C.A.T.편으로 공항하네다 비행장에 안착하셨다.

八十二세의 노령이시지만 위기가 종으신중에 내리신 부대통령 함복사께서는 대표부 김용식공사와 민단과 부민회 대

표의 환영을 받으시고 잠시 지체하신 뒤에 곧 제국호텔에 드시어 쉬이셨다.

하네다공항에서 잠시 인사를 들이고 이튿날 오전 十時三十分에 제일Y.M.O.A.를 대표하여 총무 김우현목사와 이사 한현상 김옥남 양학만 제씨와같이 다시 호텔로 방문한 필자 일행을 반가히 맞이하여 주시고 잠시 담화를 하엿다.

대단히 건강하시고 영광한 태도로 왕성한 일행에게 고마운 뜻을 표시하고 요지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 말씀을 같이 이번에는 뜻밖에 대통령의 부락과 하와이 교포들의 요청으로 그곳에 우리동포가 이민한지 五十주년을 기념하는 식

전에 참석하기 위하여 개되 었읍니다.

이번에는 길이 바빠서 동포들을 찾아보지 못하고 감니다마는 廿五日쯤 돌아올터인데 그때에는 좀 묵으면서 여러분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하와이 동포들은 예전부터 조국 광복 사업에 많은 공헌이 많기때문에 이번에는 그치하겟 갑니다

일본에 있는 동포들도 조국재건에 많이 힘써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친분을 통하여 일본에 있는 동포 여러분과 특별히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분에게 문안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길에 건강중에 다녀오셔서 다시 발길을 바라는 인사를 들이고 돌아왔다.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일반의 시기에 적어도 금일의 정세를 내가 알고 동포들에게 알리고 할수 있는한 최선의 성의를 다하여 우리의 성의와 정열을 발표하고 정부에 협력하고 세계의 여론에 호소하는바가 있어야 할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만 될것이 아니니 우주와 세계의 역사를 정의와 사랑으로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것이 당연하다.

이때에 국내나 국외의 모든교 회 모든기독교인들은 합심하여 기도할것을 기대한다.

戰災同胞를 생각 하고祈禱하자

한편으로 엄동은 닥쳐오는데 폐허에서 우는 우리 동포 특

히 전제된 동포를 생각하자

六二五사변 공산군의 침략으로 인하여 우리민족은 여러가지 방면으로 참화를 당한 결과, 삼년이지나고 휴전이 된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참상중에 하나는 저들의 무차별 학살로 또 남치되고 폭격에맞아서 또 전자로 생긴 고아가 약十五만 명이 되는데 국립과 사립 고아원에 수용된것이 그반수인 약 七만명에 불과하고 그밖에는 아직도 거리에서 방랑하고 있으며 그리고 온전한 고아라고 할수는 없으나 (아비나 어머니만 남았으나) 생활능력이 없이 유리하는 가족이 십만이 되고 미망인이 약二十萬이 되고 상의 군인이 약三十萬이 되고 집을 잃고 가산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전제민이 수백만 이상이 될것이니

저를위하여 우리는 최선의 성의를 표하여야 할것이다 혹은 위문품을 보내고 혹은 위문사절단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의 절박한 정경을 동정하여 눈물을 흘리며 합심기도 하기를 바란다.

○韓相氏(民國東京閣議長 在日Y.M.O.A.理事) 지난十月廿九日鎮海에서 喪配

○梁學萬氏(在日Y.M.O.A.理事) 十月十八日 歸國

望臺聲

부터 국 고보조물 기초로 민단이 중심되어 국민학교를 설립하여

시작하리라는것은 방향의보도와 같거니와 비록 벌써부터 시작되었어야 할 일임으로 전단 중의 정부의 보조가 없어도

민단과 부형자제에서 자진해서 경영하여야만 될 일이지마는 좌우간 시작되는것만반가운 일이다.

그동안에도 좌익측에서는 계속해서 교육운동을 해왔으나 우익측에서는 경도에 교회측에서 하는 중학이 하나 있었지만 민단에서는 돌아보지도않다가 이제 정부의 보조가 오게 되니 비로소 시작한다는것은 좀 체면이 안됐지만 좌익에서 하는 상부수단이 첫째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육에 치중하는 방침을 하고 그 열과 방법이 굉장하기때문에 만일 이대로 몇해들 더 지낸다면 재일교포사회는 전부공산주의자가 되고 민족도 부모도 모르는 소리를 조국으로 한 백성들이 될것이다.

일본 종전이후에 한때의 흥분중에서 우리끼리 시작했던 교육운동이 일본정부의 탄압으로 외부적으로는 폐쇄되었으나 좌익측에서는 그 본색인 여름날 파리떼처럼 꽃오면 뒤로 또 하얗하여 그네들이 아직 계속하는 학교(?)가 일본전국에 수백곳이 되리라고 한다 우리교육문제에는 돈보다 인물은제요 무엇보다도 이런 열이 절대로 필요하다

新年 懸賞論文募集

問題韓日問題의根本解決策

「文體(한글로쓰되 平易한漢字를 써어도 可함)」

「字數制限 四百字十枚」

「賞金 一等 一萬圓 二等 五千圓 三等 二千圓」

「마감期限 一九五三年十二月末日」

「發表 一九五四年二月末號(本紙)」

「應募資格 本紙一年代金先納者」

審査委員 張利郁 金禹鉉 田榮澤 吳允台 丁重賢

감격스러운 분위기로 모인

在日韓國 선교사 친선 다과 간 친회

지난 十一일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식의 평화 기념일이었
는데, 재일 한국 Y M O A에서는
특히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
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 여러
분을 초청하여 친선 다파회를
개최하였다 한다.

오후	三시에 Y M C A 강당	한국	김충무	오사정	오사정
에서 개최되었는데	출석한	田島 사	동경교회	오목사를	비
선교사는	二十八명	중	十六이	못하여	敎徒、民團各
					二十八명

5837

한국고려사 양학단씨 영식 자
순 君 및 본사 문주밀의 사
회로 선교사들의 한국에서의
동정(風情)의 가치가지의 공
일줄 모르는 환담과 한국 어
리의의 노래등 다채로운 무로
그림과 감격스러운 분위기로
이날의 친선 다과회를 마쳤다.
한다.



사진은 한국관계 선교사와 Y 관계자 모인 티 피—티

YWCA 海外事業에 資金
美國에서 二十萬弗寄贈

美國에서二十萬弗寄贈

美國의 Y W O A 會員費은 01
 번 二十萬弗以上の 資金을 모
 아서 世界友愛週間開始를 記念
 하여 와싱頓國立가시도앞에서

開催하면 開式席上에서 至美 Y
MCA의 外國部에 寄贈하였다

會議

全美基督教教

우리나라 및 中南美의 自由世界
諸國에 있어 Y W O A 活動을
援助하기爲하여 使用할것이다。
世界友愛週間은 世界平和爲
爲하여 기도하며 이國際의 인
婦人團體에 獻身할것을 맹서하
는 六十五個國 Y W O A 會員이
開催하는것으로 開式當日은 四
千名의 美國婦人外에 三十餘個
國의 代表者가 각각 母國의
服裝으로 參加하였다。

人種基督教論 論리하는 美國사
의理解를 깊이하기위함目的의으
民間團體의全美基督教敎徒
印敎徒會議(No. 1)는 11月
十一月八日부터 十一日까지
심론에서 年大會를 열게되
다. 이團體는 一九二八年에
立立였으며 卽제第二十五回年
大會의主題는「同胞愛에對한
리들의道德的 精神的考察」이
으로 八百名以上の代表가

全國基督教會協議會會長 윌리엄 씨 마디監督은 國際間の 理解에 重要性을 強調하며 孤

國 밑 캐나다의各地에서 모일
이라고한다。
過去二十五年間의業績을概括하

立主義는 過去의 思想이라고
指摘하면서 다음과같이 演說하
였다。

서 同會議의 스코스맨은 다
과같이 말한다。
「우리들의事業은 達成되어야

「貧困과 憎惡과 流血과 의
大海속에 있어 美國만이 安全
平和 繁榮의 섬으로 될것은

다。全人類는 모두同一한 根을 가지고 있다。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종敎의 신앙이 어떠한

萬無한 일이다。 모든人類의 子
息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安全
保障될때까지는 누구라 할찌
라도 安全한 保障은 期待할수
가 없을것이다。

平和와親善에 生活하기를
望하고있다. 倂見은 暗黒한無
로부터 生기는것이다。
우리들은 教育과啓蒙을 通하
未知와 倂見을 根絶할수있다



교 아멘젤라박사와 부인

아博士重患으로歸

一月十一日 오후二시에 하네다
공항에 잠시 머물러서 출항한
일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다
박사가 파견에 한국에서 선
교사업과 특히 목회사업에 공
헌이 많았고 사변이후에 세계
봉사의 책임을 가지고 남민
구제에 많은 노력을 했었다는

박사는 하네다에서 오후六시
까지 「커」박사와
뿔서박사
비웃으며 여러 친구들
과
이 지냈으나 그 쇠약한 건
이 허락치 아니하므로 겨우
분통만 인사한 다음에는 별
말을 못하였다는 것은 더욱
설하였다.

平和와親善에 生活하기를
望하고있다. 倂見은 暗黒한無
로부터 生기는것이다。
우리들은 教育과啓蒙을 通하
未知와 倂見을 根絶할수있다

세인 다 잘 아는바이지만 그
사회를 통하여 활동한 역량은
매우 중대한 공로가 있었는대
이제 뜻밖에 신병으로 귀국하
게 된것은 크게 애석한 일이
요 한국의 여러 관계자와 친
구와 미국의 친구들을 그가 속
히 완쾌되기를
기도하는중이다
박사와 그부인
은 공산군정착

士重患으로歸國

박사는 하네다에서 오후六시
반까지 「커」박사와 뒷사람
을 비롯하여 여러 친구들
같이 지냈었다 그 심야한
같이 허락하지아니하므로 겨우
몇분동안 인사한 다음에는 별
말을 못하였다는것은 더욱
심하였다.

세계에서 살고있다.
이儀式이 끝난후에 아이젠
하워-대統領夫人은 二百五十名
의 YWCA代表를 화이트 하
우스에招待하였다.

事業에資金

十萬弗寄贈

우리들은 強한자가 弱한자의
重荷를 덜어주지않으면 안될

全美基督教徒유대教徒

會議 開催

人種宗教를 달리하는 美國사
람의理解를 깊이기위한目的으로
民間團體의全美基督教徒
유대教徒會議(N.O.J.)는 지
단十一月八일부터 十一일까지
와싱턴에서 年次大會를 열게되
었다. 이團體는 一九二八年에
창立되었으며 금년第二十五回年
次大會의主題는「同胞愛에對한
우리들의道德的 精神的考察」이
었으므로 八百名以上の代表가
美國의 各地方에서 모일
것이라고한다.

고생각한다.
이會議는 特志家の寄附金으로
유지되고있으며 美國內六十二都
會에서事務所를 가지고있으며 大
學以下の各學部、公民館、敎會、
愛國團體、其他各種의團體、等
에 걸쳐 數百萬의美國人에對하
여 一年中 여러가지 計畫을通
하여 일하고있다. 昨午는 全國
을通하여 六萬五千以上の 行事
가 各種敎育的의親善을 增進하
기 위하여 열렸으며 千二百
萬以上の美國人이 이에協力하고
있다.

쿠-퍼감독

다시來韓

지난 十月六日 韓僑인 정보
에 의하면 그동안 二년동안
상산군의 포로가 되어있다가
최근에 석방되어 영국으로 돌
아간 영국교회 세실·쿠퍼 감
독은 다시전도를 계속하기위하
여 지난 十月四일에 다시 한
국에 도착하였다.

時說

決裂中인韓日會談

日側の接近態度로再開?

지난 十月중순 韓僑인 報로
있는 한일회담은 그동안 일본
측의 타협의 결과로 다시 세
번의 회담이 열리리라고 한다.
그동안 일본 각계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정결정의 確信은 한국에 있
으며 李相인의 韓僑인 報라고
일방적으로 선전하였으나 그로
인 문제의 해결이 될리는 없
었다 사실 여러면으로 타협의
본 결과 일본으로서도 한시간
이라도 속히 李相인 안에서
고기를 잡을수있는것이 무엇보다
다도 득책이라고 생각한 모양
이다 그 증거로는 요즈음 일
본의무성에서는 문제의 재한
어 있다고 할만하다 일본은

犧牲없는統一에의努力을希望

美副大統領韓國國會에서演說

十二日에 來韓한 美副大
統領은 十三日正午國會를 訪問
하여議長室에서 各常任委員長
과 人事를 마친후 本會議에서
約三十分間에 걸쳐 要旨다음과
같은 演說을 하였다.
「貴國會는 共產主義의 侵犯을
防止한 自由와 勇氣를象徵하
는 記念塔이라고도 할수있다
韓國政府와 韓國民이 自由를
위하여 美國政府와 美國民과
協力하여 싸웠는데 대하여 나
는 美國民과 上下兩院을 代表
하여 衷心으로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이다 今後도 韓國은
平和統一을 위하여 努力할것을
希望하여 마지않는다 오늘날
韓國은 世界的으로 알리워졌으
며 正義를 위하여 貢獻한 그
高貴한 의생은 民主主義發展思
想에永遠히 남을것이다 그리
고 韓國青年은 世界人類의 自

比律賓大統領選舉는

맷그새이새이氏被選

比律賓次期大統領은 레온·맥
그새이새이氏가現任리노大統領을
물리치고 壓도의인多數로當
選되었다 맥그새이氏는 여섯살
만부터 父親의 家業을 돌고
小學校에 들어가서는 每日 四
이것을 認定하지 않는다」라는

大阪教會

長老 按手式
오사카교회 김근화 김관옥
양성자는 오는十二월 初주일
오 전예배후 안수식을 관서
지방회사식으로 거행한다고한
다.

현당식과

교회 설립에 배
경도교회소속이었던 시가평(滋
實) 신기전도소는 금년초회에서
전도교회로 인정을받고 지난二
十四日 교회설립기념예배를
전례예배후 안수식을 관서
지방회사식으로 거행한다고한
다.

感謝節의 感激

秋收感謝節感想

田永福 牧師

人心이 극도에 타락하면 背
恩忘德하여 萬망과 滅亡의 業
火에 陷을 태운다. 世界의
基督徒들이 十一月秋收의 節
을 마치고 十一月의 節
하나님께 드려 감사의 제사를
성대히 지킨다. 마음은 감사의
열정에 넘치며 눈에는 성스러
운 감격의 눈물이 은방울같이
흘러 손에 손으로 벗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
서 예배와 성도의 사랑을 즐
기는 것이다. 평화의 종소리
높이 중공에 울리고 건설의
송가는 대지를 흔든다. 지나가
고가는 그리운 추억이 되고
향하는 소망에 가슴은 터지는
듯 소슴치는 신앙의 지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앞에 고개를
숙인다. 萬망도 滅亡도 나의
심중에서 사라져버린다. 묵묵히
나의 마음속에 정의와 희생의
새각오와 결심을 맺는다.
세계는 두길로 갈라지는 오
늘날 끝없는 萬망의 길인가
한없는 감사의 길인가 萬망은
불평을 일으키고 불평은 투쟁으로
다를지치고 투쟁은 파괴와
멸망과 맞서는 비극에 인생을
어디서 자연 감사가 적기도 하

감사절에 소감

朴斗星

지금부터 약 30년 전 일이다
아마도 그때에 내가 소중히
남겼던 것 같다. 그때에는 감
사절을 수요일에 지켰던 것이다.
아침 예배(朝會)시간에 선
생남편이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날이다. 우
리는 1년 동안 매일 하루씩
이든지 주시오 주시오 하고
살지만 오늘날만 일체 주시오
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라고만
하자 고하셨다.
세월은 흘러 모두가 변하고
기억도 희박했지만 은사의 감
조하시던 말씀은 감사절을
맞아할 때마다 새롭게 기억된다.
감사절에 매 기도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늘은 감사만 하는 날
이라" 하던 음성이 귀밑에서
들리는 듯하다.
현실과 순간에 집착된 우리
생활은 전쟁(戰爭) 정신과
에서 자연 감사가 적기도 하

민음의 싸움의 武器

鄭京姬

今年度에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많으니 이를 어찌
다 기록할 수 있었으랴만 은혜중
적은 듯하나 나에게 큰 은혜
라 그는 빌립보第四章과六章
말씀이다 나는 어느 여아의
건강을 위하여 염려하게 되는
중 이일에 착념케 되었다 빌
립보의 말씀은 늘 보고있었으

恩寵을 回想하여

南保羅 牧師

「여호와와 맺은 계약을 기억
하여」(시七七)
우리는 다만 감사절에만 하
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날마
다 무엇이나 감사할 것이 있어
야 할 것이다 만일에 현재에
구원을 받았거나 축복받은 것이
없거든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
고 과거의 주님께 내가 행하
신 모든 놀라운 일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과거의 은혜를 명상
하면 가끔 우리의 한숨이 변
하여 찬송이 될 것이요 우리의
고통이 승리가 될 것이다. 이
시편 작자는 고통 가운데 있었
다 그래서 밤에 주께 부르짖

나 그리 큰 감동함을 받은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상히도
나의 염려하는 일에서 한이
되어 감동케 되었다 따라서
단히 수고와 고통에 지나지 않
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
심령에 힘이 되고 하느님
하나님이 계시는 바라는 것
들의 실상이니 말씀대로



書簡文

(편지)

오전에 있어서(복국에 있었
더라도) 일찍 일어나서(복국에
우리가 한국 민족으로 한국말이
서부로부터(복국) 한
장 바로 못쓰는 것은 매우 유
감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이
가장난을 통하여 우리 편지부
를 약간 소개하기로 합니다.
「고국에 계신 父母님께
父親主(母親主) 前 上書
그리운 어머님께 드린다
오래 살피지 못한(혹) 문안아
로움지 못한(이때) 첫겨울
初冬 일기(日氣) 자못 한
寒飈 하네다 하나님은 계신데
(神祐中) 아버지 어머니(父親
界)에 어디든지 있는 萬물이

이러한 역경에서 이와 비슷
한 자기민족의 형편을 회상하
여 애급에서 종노릇하는 일을
생각하게 된다 하라 모세를 시
켜서 그 백성을 애급에서 인
도해신 하나님께서는(26-27)
다시 바빌론 포로중에서 그
백성을 구해내실 것을 믿었다.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
다시 다른 이를 구원하실 것이
니 이제 시인은 용기를 얻어
서 전에 행하신 것과 같은 놀
라운 역사로 당신을 나타내시
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나는 지금 한국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사정을 자세히는
모르나 이때에 시편 작자와
이스라엘 사람이 당한 형편보다
더 심하지는 아닐 줄 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
성을 돌보신 것을 기억하고 또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회상하였었다 우리 형제들
이 말씀으로 나의 영혼의
싸움에 무기가 되어 어떠한
시험한 난을 이기고 남
게 하여 주셨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신과(聖靈)
소(心)를 감사하여 마지 않
는다.
主母親主(기체후(氣體候) 내내
一向(안녕(安寧) 하시고 내
제(宅內諸節)이 무고(無故
하신지 삼가 문안(問安) 아뢰
옵나이다. 여식(女息) 혹은
자식(子息)은 어리석음을 더
고 타국(他國)에서도 무방
(無妨) 하오니 어머니(아버님)
(無慮(念慮) 하옵소서 덕택(德
澤)이요 어머니 하나님(慈母)은
해(恩惠)이 넘칩니다.
우리 가문(家門)의 뒤를
이을 종손(宗孫)이요 우리 집
주인노릇을 할 오빠가(혹 동
생이) 전사(戰死) 하고 있으니
어머니 아버지 언제나 잊지
못하시고 슬퍼하시고 마음 아
프심을 금하실 길이 없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
모님 동사지(子)에게 더욱 고
생이 되실 줄 압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조국(祖
國)에 바친 일이고 세계(世
界)에 어디든지 있는 萬물이

(前)의 (後)로 당한것이 오니 단념하시고 과히 상심 (傷心)치 말으시기 바라나이다

작은 동생 X가 일을 잘한다 작은 소가 큰 소 구실한다"는 말과같이 걱정 없습니다. 더욱이 금년(今年)에는 다행히 동년(豊年)이 들었으니 하오니 참 하나님의 은혜를시다 아버님께 서도마포록 앞으로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백성들이 다 예수 믿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멀지 아니 하여(不遠)할경이의 세력(勢力)도 뛰어들고 참 평화(平和)의 시대(時代)가 올 줄 확실히 믿사오니 부디 모든 학생을 참으시고 앞날의 희망(希望)을 바라보시고 용기(勇氣)를 가지고 싸우는 정신(精神)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도 저들의 간악(奸惡)한 모략(謀略)이나 교(교)에 들지마시고 단결(團結)하여 그들 대항하도록 하시고 대한민국(大韓民國)에 충성(忠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부탁 하옵나이다.

범범치 못한것을 우편(郵便)으로 부송(附送) 하오니 받아 주시고 형님(을케)과 동생들

X X

우리는 하나님께서 잊으시는 일이었다는것을 기억할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탄과 세상에서 구해주셨다는 의식이 없으면 그의 종로서의 신분이 없을것이다 이사야四四章23에 말씀하시기를「야 관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종이라 내 허물을 도말하였으니 하늘 아 노래 할지어다」

우리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것을 노래하자 장래에 하늘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노래하자.

고통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과거의 은총을 돌아보아서 다 시 확신을 가지는것은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것이다



한국 요리 법

등골 찜

재 료 (두합 분량)

등골 한보 파	두부리
우육 반근 호추가루	조금
표고 두조각 깨소금	한큰사시
석이 두조각 기름	세큰사시
미나리 조금 계란	두개
밀가루 한습 소금	한차사시

1. 소 등골의 찜질을 벗겨서 닦은 길이로 잘라서 넓게 펴놓고 소금을 약간씩 뿌려서.

2. 이것에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을 풀어 섞어서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지지놓고(빛이 깨끗하도록 타지 않게 지지 것)

3. 고기는 곱게 이겨서 여러가지 약념을 해서남비에 담고 등골전을 넣고.

4. 그위에는 미나리 초대와(미나리 초대법을 참고 할것) 석이 표고 썬것을(석이 썰는법을 참고 할것) 얹고.

5. 물을 자란자란하게 붓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고기가 익을만큼 잠깐 끓이다가.

6. 파 채썬것을 얹어 잠깐만 뜸을 들여서.

2. 합에다가 양전히 담아 놓느니라.

우 설 찜

재 료 (세합 분량)

우설 한개 깨소금	한큰사시
우육 반근 호추가루	조금
감사 다섯개 파	한부리
옥초 세개 마늘	반쪽
당근 한개 간장	적당히
기름 조금 물은	건디가예달을만큼
숙순 한개	

1. 고기를 찜잎 같이 얇게 썰어서 갖은 약념을 해서 남비에 담고.

2. 감자는 적당히 썰어서 남비에 넣고.

3. 옥초(등근파)은 네쪽에 썰어서넣고.

4. 당근은 가름가름하게 썰어서 다 한데 넣고.

5. 죽순을 연한데로만 당근과 같이 썰어 넣고.

6. 물을 자질자질하게 붓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펄펄 끓이다가.

7. 우설을(소의 혀) 두툼 두꺼로 넓적넓적하게 썰어서 넣고 한참끓여서 물이 절반쯤 줄거든 상에 놓느니라.

8. 다 익은 다음에 파잎을 채쳐서 넉넉히 얹고 뜸을들여서 놓느니라.

(四面에서 계속)

그리 第一次世界大戰이 始作되자 獨逸人 슈바이처-夫妻는 佛蘭西의 捕虜가되어 歐羅巴에 送還되어 있기에문에 事業도 잠시 쉬었지만 大戰이 끝난後 一九二四年二月에 다시금 야후

리카에 건너가서 슈바이처-는 病院을 再建設하여 지금에 와서는 五十棟이나 되는 建物과 三十人이 되는 사람들이 그들 도위 黑人을 指導 및 救濟하는 큰 힘이 되어있다.

지금 老博士가 晝夜로 생각

웃에 먹이 붙은것을 발알로 비벼가지고 비누로 씻으면 된다

피물은것은 곧 물로 씻으면 된다

오래된것은 무릎 잡아가지고 몇번 비비면 빠진다.

讀者의 소리

投書를 바랍니다

우리 신문에 대한 요구나 불평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기탄없이 간단히 써 보내주시시오 우리가 참고도 하고 지상에 실기도 하렵니

다(그러나 지상에 내지 않고 내것은우리에게 맡겨주실일)은지예 대한 일이 아니라

도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 보내주시시오 여러분의 의사와 여론을 존중하는 의 미에서 가급적 지상에 발표 하렵니다.

(편집부)

하고있는것은 世界와 人類를 滅亡시키는것 使用할 可能性이 濃厚한 文化 및 科學을 어떻게 하면 眞實로 全人類를 救濟하는 文化 및 科學으로 하느냐 하는것이 이와같이 全世界의 平和를 위하여 奮鬥努力하며 있는 슈바이처-博士야말로 노 眞平和實에 適合한 人物이라 하겠다.

의 치마감으로 쓰도록하시고 만일 돈이 아쉬우시면 더러 팔아쓰시도록 하시옵소서.

동봉(同封)한 사진(寫眞)은 어렸적과 최근(最近)에 박힌것이오니 웃으며 보아주시옵소서.

끝으로 요새 환절기(換節期)에 두분 노체(老體) 보충(保重)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사연줄이 끝나이다.

十月X日

불초여식(不肖女息) 아모개상서

香氣 無神論者의 臨終

어떤 사람이 한 중병환자를 위하여 경험 많은 간호부를 구하고싶다고 어떤 간호부에게 부탁한즉 그 간호부가 대답하기를 그 환자가 죽 무신론자나 아닌지요 무신론자이면 싫습니다(그러서 그의유를 물은즉 내가 한번 불태워씨의 간 호를 한 일기 있는데 임종 때 그가 몹시 고민하던것을

지금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그는 자기가부인하던 하나님의 심판 자리를 눈앞에 보고 양심의 가책에 못 견디어 몹시도 고 통하면서죽는걸요 무신론자의 간호는 다시 안할것이요. 불태우는 무신스의 유명한 무신론자 이었다.

田榮澤 作

이른날 아침에 태호는 열시
나 넘어서야 깨었다. 벌써 사
랑방에는 회사의 총무국장도
와서 한시간이나 기다리고 손
님들이 세사람이나 윤사장이
있거나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
다. 그중에는 왔다가 그냥 간
사람도 있고 잠깐 안방으로
들어와서 아직 자리에 누워있
는 태호와 몇마디 수군거리고
간 사람도 있다.

「여보 인제 그만 일어나서요
인선생이 이제 오시게 되었소
남들 기다리는 생각을 하셔야
지 당신은 미안하지도 않아요」
명애는 자리에 누워서 담배
를 피우고 「코히」를 마시고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는 태호
를 성화하듯 재촉해서 겨워
일어나게 한 것이다.

「미안하긴 무에 그렇게 미안
해요 제게 김한 일이 있어서
온 놈들이지 하나나 날 위해
서 온 놈이 있는줄 아오 사
람이란 다 저 살려고 그러구
제 잇속 불려고들 그러는거야
요 그러니까 남들 속이기두
하구 나쁜 짓도 하는거지 사
람이란 그런거라우 그러니까 말
이야 사람이란 제 멋대로 살
기도 하고 형편대로 저 편할
대로 하는거지 그다지 바득바
득 애를 쓰고 조급하게 그럴
거 있어 사람이 살면 천년을
사나 만년을 사나 단 백년도
못사는걸 당신처럼 그렇게 염
려가 많구 일본말루 「빠가 쇼
지끼」가 되어가지구는 못살아
알아 들겠소?」

태호는 아직도 진문장을 들
여다보다가 무슨 생각을 하다
가 하면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글세 나는 아직 당신만큼
정도가 못되어서 그러는지 당
신의 말을 못알아 들겠소 그
러면 남들 속이구 나쁜짓을
해도 좀다말이요 당신두 그렇
게 하신테요 남들 속이구 나
쁜짓을 해서 잘 살면 무얼
해요?」

「하필 나쁜짓이야 사람이 살
아가려니까 끔지력거리고 무슨
일을 해야되고 사업을 하려니
까 이런 수단 여던 수단 세
야 되는거지。」

「그러면 나쁜 일도 한 수단
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구 이제 당신두 예뻐당여
다 남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 당신 예뻐당여 안다닌다구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아세요
당신은 생각이 틀렸어요 철저
하질 못해 엉뚱 엉뚱 회색이랄
가 기회주의랄가 어떤 사람이
당신을 「팔방미인」이라구 그러데
다」

「나는 미인이 좋더라 미안하고
일명생 그럴듯하게 지냈으면
좋겠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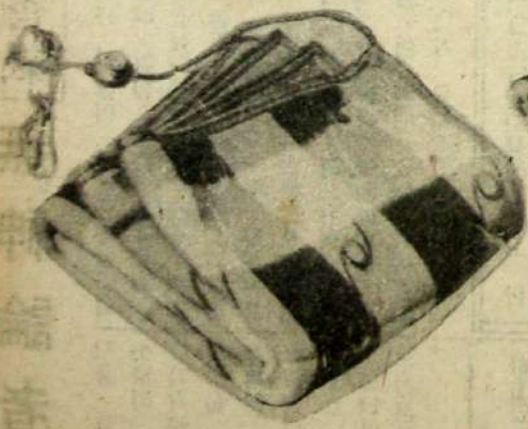
「그래서 당신은 해련인가 그
럼에게 그렇게 반했소 그러지
말구 이제라도 회개하구 예뻐
당여 다녀야 돼요 안돼요」

미인이 좋다는 말에 명애는
화가 덜컥 나서 이렇게 내
쏘았다.

「아이구 머리 아파 또 설교
듣기 싫어 나는 어떤 뻔 예뻐
당여 가보구 싶어도 그 골치
아픈 설교 듣기 싫어서 못가는
걸 무슨 죄니 회개니 천당이
니 지옥이니 아이구 머리 플
치 아파 누가 천당 가보았나
천당 가본녀석이 있나?」

태호는 제야서 슬그머니 화
가 나서 뻔 나갔다. 손님 몇
사람을 잠깐 접대해서 보내고
아침도 안먹고 총무국장을 재
촉해서 요새 새로 산 시보레
五十一년제 자가용을 몰아 사
무실로 달렸다.

태호는 푸근한 쿠션에 기대
고 앉아서 미안해 할 명애를
생각하고 서울에서 기다릴 해
련을 생각하고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벌써 아라가 있고
탕쿠가 자기 시작한것이 생각
나서 명애의 말에 경기가도
하고 명애같은 세상모르는 여
자와 결혼해서 자기에게 도움
이 못되고 머리플만 아무게
하는것을 생각하면서 「러키스트
라익과 딱딱 피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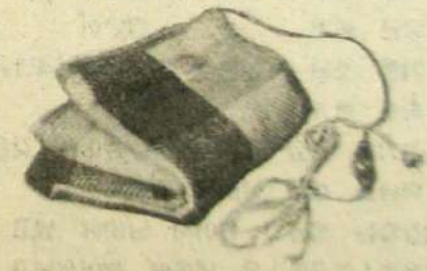


●大型 (100cm×150cm)
六段温度調節(OFF 15 W 30 W 60 W)
120 W 240 W

¥ 15,000.-
全国有名デパート 特約店에서 求
하십 시요 地方特約店子約中
가 다 로 구 連呈



●中型 (70cm×150cm)
六段温度調節(OFF 10 W 20 W 40 W 80 W 160 W)
¥ 10,000.-



●小型 (55cm×110cm)
六段温度調節(OFF 5 W 10 W 20 W 40 W 80 W)
¥ 6,700.-



●座布団型 (50cm×50cm)
四段温度調節(OFF 10 W 20 W 40 W)
¥ 4,000.-



●婦人科検診台用 (50cm×40cm)
四段温度調節(OFF 10 W 20 W 40 W)
¥ 4,200.- ビニールカバー 500.-

通 産 業 省 電 氣 用 品 型 式 承 認 済

最新型電氣毛布 // 優美温度調節器付 //
現金取引 // 製品保証付 //

ダイヤモンド電氣毛布製作所

東京都江東区白河町 2・6

(通商産業大臣製造免許第2398號)

特長

- (1) 温度調節自由
- (2) 折疊み自由
- (3) 洗어도感電し ません
- (4) 電氣代 一日使用 代金 4円以下